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을 중심으로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hydroj90@makehope.org)

요약

- 1972년부터 이어져온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표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추진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이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 시민들과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나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교육과 대학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또한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쓸모있는 걱정〉(이하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 실행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설명,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을 중심으로

요약

○ 아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며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UN SDGs, 시민교육

I. 지속가능발전과¹ 시민

1.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UN SDGs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를 확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인류가 지향해야할 방향임을 확실히 했다. 지난 2016년은 UN SDGs의 이행 원년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목표이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는 매년 각 국가에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종합국가평가보고서(Synthesi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로 엮어내는 등 UN SDGs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국가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행준비가 미흡하며 보고서 전반에 걸쳐 SDGs와 무관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2016).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실한 노력과 달리 서울시와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중 공유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UN SDGs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

UN은 SDGs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주체로 세계 각 국과 지방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주체들도 포함시켰다. 이는 UN SDGs의 17번 목표인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세부목표 17(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로 명시되어있다. 이처럼 다양한 집단과의 협력과 논의를 통한 추진은 비효율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Gladwin 등(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5가지 특성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¹⁾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를 가장 널리 사용한다.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는 성장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희망이슈 제7호 참고)

[그림 1] UN SDGs 17.17



SDGs 세부목표 17.17은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글로벌 파트너십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민간단체, 기업, 여성, 청소년, 농민,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선주민을 9개의 주요그룹(Major Group)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와 이행체계를 담은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서부터 수립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 개발 참여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몬테레이 유엔개발재원총회(2002)에서 집중 조명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부문의 가치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DGs는 파트너십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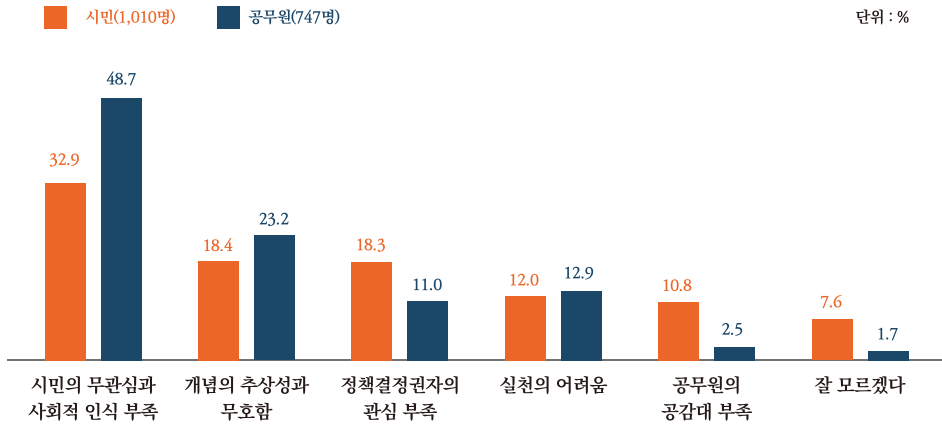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즉,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주요 방식인 것이다.

3.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약요인

시민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주체임과 동시에 동력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완결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공무원과 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가장 큰 제약요소로 '시민의 무관심과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았다. 게다가 일반시민 뿐 아니라 [그림 3]과 같이 민·관 파트너십의 주요 주체인 기업의 관심과 인식도 매우 부족하다(임소영, 2017).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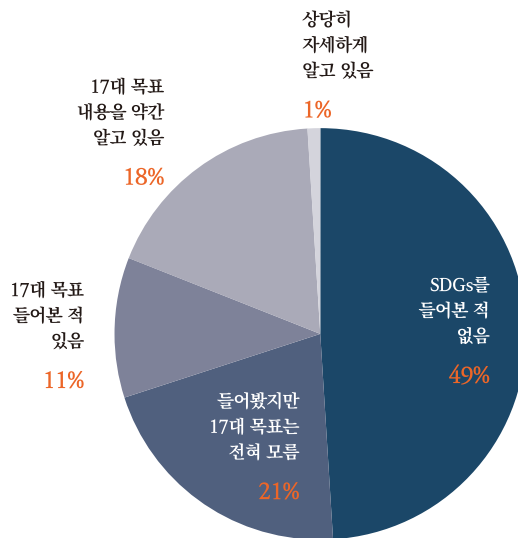
² 글로벌 기업 대상 해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SDGs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했다.

[그림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제약요인



출처: 서울시(2016)

[그림 3] 국내 기업의 UN SDGs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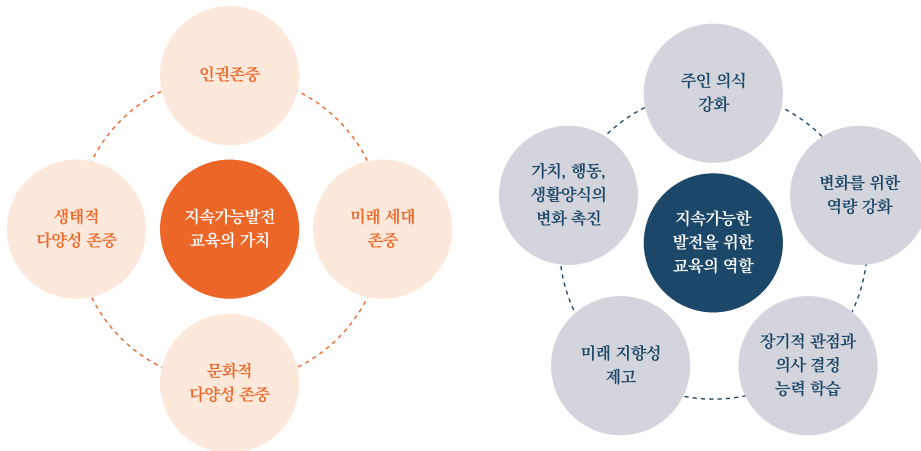
출처: 산업연구원(2017)

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구성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 대두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인증하는(ESD) 등 다양한 주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성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시행되는 상당수의 교육들은 지속가능발전에 포함된 특정 이슈만을 다루며 통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참신한 교육방식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발전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지속가능발전교육들은 ‘지속가능한 것’들을 교육할 뿐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지속가능발전에서 사회적 부분을 배제한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담아내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김수경 외, 2016).

현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양의 부족이다. 기업·정부·NGO 구성원의 지속가능발전인식연구(김은경, 2015)에 따르면 세 집단 전체의 59%가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공무원 표본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 무경험자는 59%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업·정부·NGO 집단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	기업(313명)	정부(226명)	NGO(218명)
없음	227(73.8%)	90(33.6%)	154(73%)
2시간 이하	60(19.4%)	41(15.5%)	20(9.2%)
2~6시간	17(5.5%)	76(28.8%)	10(4.7%)
1~2일	1(0.3%)	9(3.4%)	5(2.4%)
3~7일	2(0.6%)	48(18.2%)	8(3.7%)
한 학기 이상	1(0.3%)	-	14(6.6%)

출처: 김은경 (2015)

직장인, 공무원, NGO활동가 뿐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수업 이후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현저하게 낮다(김수경 외, 2016). 지난 10여 년 동안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뤄 온 덕분에 이를 인지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으나, 입시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이해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대학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강의를 찾기 어렵다.³⁾

[표 2] 대학생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출처

항목	응답자	%
중·고등학교 수업(교과서)	160	88.9
대학 강의	2	1.1
인터넷, 미디어(신문, 방송)	15	8.3
책	3	1.7
합계	180	100.0

출처: 김수경, 이숙정 (2016)

3) 서울대학교(2017년 1학기) - 학사(1건), 석박사통합(4건), 박사(1건)
 고려대학교(2017년 1학기) - 교양(1건)
 연세대학교(2017년 1학기) - 없음(2016 2학기 학사1건)
 서울시립대(2017년 1학기) - 대학원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1건)

[표 3] 대학생 지속가능발전교육 참여경험과 형식

항목	응답자	%
정규과정(중·고등학교)	98	54.4
심포지엄, 공청회, 외부강좌	18	10.0
방송매체	4	2.2
워크숍	8	4.4
경험 없음	52	28.9
합계	180	100.0

출처: 김수경, 이숙정 (2016)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이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양 및 전공강의를 개설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학’을 대학원과 학부 전공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시민들도 아우를 수 있는 시민교육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이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학계와 시민사회, 중앙 지방정부 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II. 새로운 지속가능발전교육 제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 외에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요소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교육들이 담론 그 자체가 아닌 환경보호, 공정무역 등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통합적인 관점을 전달하려면 담론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통합적인 관점을 전달하고자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⁴⁾’을 기획하였다.

4)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은 희망제작소에서 기획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이다.

[그림 5] 쓸모있는 걱정



〈쓸모있는 걱정〉은 2016년 12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원자력발전편’과 2017년 3월 ‘과학의 창으로 바라본 사회 2017 Fact Check편’ 2회가 진행되었으며 연간 4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연 4회 중 매년 첫 번째 교육에서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각 1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로 나머지 3회의 교육을 기획한다. 교육은 지속가능발전 개념 교육과 전문가 강연,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 시 참고를 위해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 설명, 둘째,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셋째,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1.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 설명

지속가능발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속가능발전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고자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쏟아져 나왔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상성과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복잡다단해진 현대사회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묶어낼 수 없듯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가치가 담긴 지속가능발전 담론 또한 쉽게 규정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최근에 만들어진 담론이며 담론 형성의 초기과정에는 지금과 같이 다양한 정의들이 혼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Gladwin, 1995).

그렇다면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접근 방법은 사회적 맥락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담론의 이해를 프랑스 대혁명기 직전의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접근하듯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또한 이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의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장의 한계」(1972)로부터 시작된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이 성찰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안이다.

개념 설명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비교이다. 지속가능발전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과 비교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성장주의는 지속가능발전과 대비시키기 좋다. 예를 들어 성장을 ‘양적 팽창’으로, 발전을 ‘질적 개선’으로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발’, ‘성장’, ‘발전’의 용어를 비교해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개발 또는 지속가능성장으로 표기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2.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금까지 시민들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스스로 사회현상이나 정책 등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껏 지속가능성의 판단기준인 지속가능성평가는 전문가들 혹은 일부 공무원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지속가능성의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있다. 우선 시민들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지속가능성 판단의 영역을 전문가 집단에 한정시킨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지위를 약화하며 일부 전문가들에게 오롯이 맡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동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담론은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거나 정치적 수사로 밖에 남지 못하며 바르게 추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시민들이 쉽게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림 6] 지속가능발전의 5가지 특성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전성
				
시간적 범위를 미래세대까지 확장 공간적 범위를 지구 차원으로 확대	상호의존성과 포용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동시 고려 요구	정의, 공정성 등을 포함한 개념 자원/복지의 공평 배분 세대간 형평성 세대내 형평성 종간 형평성	보호와 예방 비가역성, 생태계 영향,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결정 과정	물리적 안전만이 아니 라 인권이나 민주적 참여 권한의 침해 등 포괄 높은 삶의 질 (미래세대)

〈쓸모있는 걱정〉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Gladwin 등(1995)이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정의를 메타분석하여 도출한 ‘지속가능발전의 5가지 특성’이다. 이는 [그림 6]에 간략히 정리되어있다. 5가지 특성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여기서 제시하는 수준은 ‘예’, ‘아니오’ 정도로 간소화 하였다.

사안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단의 대상이 될 사안(정책 사회문제 등)을 선정하고 그 사안에서 각 특성의 세부 키워드들이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결과를 종합해 각 특성의 고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5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한다면 매우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각 특성이 어떻게 판단기준으로 쓰이는지는 ‘〈쓸모있는 걱정〉_원자력발전편’의 주제였던 원자력발전을 사례로 예시와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포괄성(Inclusiveness)

포괄성은 시간적으로는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확장하여 고려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지구차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한다’는 미래세대와 지구차원의 연계성·형평성·신중성·안전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상황인지를 묻는 것이다.

□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중 포괄성을 고려하였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방식인가? (O/X)

- 원자력발전은 지구적 차원을 고려한 방식인가? (O/X)

2) 연계성(Connectivity)

연계성은 상호의존성과 포용,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모든 주체(현재 세대 미래세대 동물 및 자연환경)/모든 분야(경제 사회 환경)가 연계되어있음을 말하며 연결된 주체 및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중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적이며 포용적인가? (O/X)
- 원자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인가? (O/X)

3) 형평성(Equity)

형평성은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인간과 다른 생물종)의 정의와 공평함을 의미한다. 특히 집단 간에 재산이나 자원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전가되는 일을 경계한다. 현재 세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것이나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국가의 재산이나 자원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함 등을 의미한다.

□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중 형평성을 고려하였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 정의와 공평함을 보장하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자원 복지의 공평배분을 추구하는 방식인가? (O/X)
- 원자력발전은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식인가? (O/X)

4) 신중성(Prudence)

신중성의 원칙은 보호와 예방이며 비가역성(돌이킬 수 없는 성질), 생태계 영향,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결정과정이다. 이 특성은 보호와 예방의 원칙으로 위험성이 있는 선택을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중 신중성을 고려하였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보호와 예방에 중점을 둔 방식인가? (O/X)
- 원자력발전은 비가역성, 생태계 영향,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결정과정을 거쳤는가? (O/X)

5) 안전성(Security)

안전성은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인권이나 민주적 참여권한 등 권리의 침해 방지도 포함한다. 다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고려하며 모두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

□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중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O/X)

- 원자력발전은 물리적 안전을 고려한 방식인가? (O/X)

-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인권이나 민주적 참여권한이 침해받지 않았는가? (O/X)

6) 결과도출

위의 질문들로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교육 참가자들과 판단했을 때 다음과 같았다. 우선 포괄성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방사능의 위험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적 차원의 고려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생각한다면 쉽게 답이 나온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바다로 흘러나가 전 지구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은 포괄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방식이다.

다음으로 연계성을 보자면 ‘상호의존적이며 포용적인가’라는 질문과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는가’하는 질문은 원전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원전이 지어지며 연계 되는 손익을 파악하면 쉽다. 다시 말해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지 원전 인근 주민들과 사회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하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서울·경기권이며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이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원전이라는 위험시설을 지근에 두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 또한 존재한다. 환경적으로는 두말 할 것 없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 또한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극명하다. 연결된 주체들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다면 결과는 ‘그렇지 않다’인 것이다.

형평성은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의 형평성인데, 위에서 보았듯 세대 내에서도 형평성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물질이라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오염물질을 넘겨주는 것이며 그 처리비용도 전가하는 것으로 세대 간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종간 형평성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생각해본다면 그 답이 명확하다. 원자력발전은 형평성 또한 고려되지 못한 발전방식이다.

신중성 측면은 어떠한가? 원자력발전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문제발생의 위험성을 예방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그 자체가 오로지 전력 공급을 위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고의 위험성이나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가역성, 생태계 영향,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결정과정을 거쳤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정부 주도하에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이나 관련 학계, 환경단체들과의 신중한 고려는 이루어진 적 없다. 물론 원전이 처음 지어질 당시의 시대상황이 군사정권이었던 측면은 있으나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수명 연

장과 추가건설 시도에서도 신중성 측면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물리적 안전과 인권 및 민주적 참여권한이 보장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본다. 원자력발전이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거나 지키는 결정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항상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혹여 원자력발전이 전기를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 서울 시민을 위해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 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지 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전성 중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완전히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사회 현상이나 정책 등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에서 도출한 질문들로 현상이나 사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보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기준에서 묻는 질문에 답할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쓸모있는 걱정〉 원자력발전편을 예로 들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으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한정적이었다. 특히 중요하고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자료들 중 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보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원자력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일방적 제공 뿐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며 정부의 정보공개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나 넘쳐나는 정보 속 중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보 가공능력을 요한다.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가공하여 판단기준에 대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시민교육에는 시민들이 주목하는 의제들에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쓸모있는 걱정〉은 매 주제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그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주장들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으며, 원자력계의 이익을 위해 숨기는 정보들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렇듯 사회에는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존재하며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 가장 단적인 예로 아직도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적이고 차세대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사회를 진단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강연 등

을 통해 반드시 각 분야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4. 시작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실행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일반적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며 공간적으로는 지구적 범위를 다루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시민들에게 괴리감과 부담감을 안겨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대상 교육은 미래세대와 지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설화에 앞서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보는 형식이 좋다. 시민들의 문제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읽어보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이 거대한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쓸모있는 걱정>은 시민들의 걱정에서부터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읽어보고자 하였다. <쓸모있는 걱정>이라는 이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담론과 시민 사이의 괴리감과 부담감을 조금 줄였다면 그 다음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우리사회의 문제로, 우리사회의 문제를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시민 개인 차원에서 설명이 끝난다면 이는 포괄성과 연계성을 빠뜨린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겪는 실제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며 다른 이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성의 고려를 통해 본인이 아닌 다른 이의 문제에도 공감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종래에는 지구적 차원으로 연결되며 시간적으로는 미래세대까지 포괄적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다.

III. 지속가능발전 실현 확산을 위한 제언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시민들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해보는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이슈에서는 보다 다양한 곳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속가능발전 담론 교육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겨우내 사회를 바꾸는 시민의 힘을 몸소 체험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이를 배우고 몸소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학습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도

시민의 힘이 필수적이며 그 힘을 배양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함께한 긴 겨울을 넘어 ‘그 다음’을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시민들과 함께 ‘그 다음’ 봄을 함께 그려가길 바라본다.

The Hope Issue

참고문헌

국내문헌

■ 논문

김수경, 이숙정 (2016), 대학생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2), 33-40.

김은경 (2015), 기업·정부·NGO 구성원 간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연구보고서

서울시(2016),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시

인은숙(2016),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희망제작소(희망이슈 제7호)

인은숙(2016), 작동하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희망제작소(희망이슈 제 15호)

임소영(2017),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 과제, 산업연구원

■ 기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외국문헌

■ 논문

Thomas N. Gladwin, James J. Kennelly, Tara-Shelomith Krause (1995), Shifting Paradig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www.makehope.org

ASIA NGO innovation summit

아시아 비영리단체를 잇는 글로벌 행사
The Young Foundation 24개국 4개년
SIX 한국전례로서
정중을 위한 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사회적 가치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랩포럼
아워드

흥행의 대대
HAPPY SENIOR AWARDS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시니어
사회적 기업
어려버! 함께
돈과 재미 인생 설계
social innovation

99% 행복함 공공체 good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재가치,
미인페스트의 기업을 이양해요.

여성사 공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사업단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한국여성재단 후원

노년활발한 삶
국회 노인문제특별위원회
고령화위원회
노년문제연구회
노년문제연구소
노년문제학회
노년문제연구소
노년문제연구소

[illegible][illegible]

I HOPE **IDEA**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인스쿨
SDS **타운후**
Let's
 HMC 시인과 함께는 도도치니
 인성이드와지원센터 good fund
 Social Innovation false
 Camp 36
 도농도시농업시
 커뮤니티
 법원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솔루션마스터스
마기희, 안판숙, 손
출연, 이마을
리엘, 정단, 지성
HMC
재난안전연구
지리광동체
마크처럼가
나눔

저 아저씨 시민사회방
이상해요. **오토**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싶어요.

충남희망타운
문화재단
지자인
재발견
사들의
재구성

good
돈은 돈 가
돈은 돈 가
good fund raiser
회원의 자의 한 톨기 1004를
SDS 시니어
커뮤니티
매월
두 번째 인생 황금
therefore I am
HOPE
인생 황금
사회 전
HOPE
HOPE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 집단지성포럼 개최

작은변화
행동하는 시민이
시너지를
만들면 사회
변화를 이룬다

김치찌개데이
김치찌개
경산에

104클럽
에코라이프, 나들
희망탐사대

Make Hope
영국로마자노, 나노
영국로마자노, 나노
영국로마자노, 나노
영국로마자노, 나노

해피리포터 시민문화예술을
good fund raiser 호혜와 연대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